



남원 농어촌공,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남원시는 12월,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김민수)가 고향사랑기부금 37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는 지난해 500만원을 기탁해 총 870만원을 누적 기부하면서, 건강한 기부문화 형성과 남원시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민수 지사장은 “이번 기부가 남원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남원지사에서도 농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남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경식 시장은 “매년 지역발전을 위한 기부금을 기탁해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리ند며, 기부금은 청소년들의 육성과 보호에 활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남원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 2024년에 중학생 해외 영어캠프 지원사업(누질랜드 24명)과 특성학교 실습용 푸드트럭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도통동서 사랑의 얼음생수 40박스 기부

남원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1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실시일만 모은 기금으로 '사랑의 열음 생수' 40박스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30일 동안 지속되는 폭염으로 무더위 쉼터,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를 대상으로 1일1가구 소동행정 운영 일환으로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고산마을 주민 김모씨는 "폭염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주민들을 향한 촘촘한 돌봄과 서비스를 함께 나누게 되어 기쁘다"라고 전했다.

이재철 도통동장은 "이번 열음생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무더위쉼터 등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운봉읍 '찾아가는 마을애(愛) 간담회' 추진

남원시 운봉읍(읍장 이은주)은 하반기를 맞아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마을 현안을 공유하기 위한 '찾아가는 운봉 마을애(愛) 모정간담회'를 8월 한달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간담회는 관내 34개 마을 회관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읍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애로사항을 청취함을 물론, 운봉읍정 주요 현안도 함께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했다.

특히 간담회와 함께 직불금 관련 교육을 연계해 실시함으로써 직불금 관련 농가의 실질적인 이해를 돕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까지 도모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동충동, 까치미용실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동충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차남, 조태봉)는 12일 1일 1기구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관내 까치미용실(사립주 김향순)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까치미용실(사립주 김향순)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나눔 활동에 꾸준히 동참하겠다"라고 전했다.

동충동은 매일 1기구를 직접 방문하는 '1일 1기구 소통행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굴하고 있다.

김차남 동장은 "앞으로도 이웃이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상생 동참, 나눔문화 확산에 힘 보태

하나감정평가법인 전북지사, '전주함께장터' 기부금 200만원 후원

전주시가 추진하는 전주형 착한 소비자 운동인 '전주함께장터' 프로젝트에 지역 기업들의 따뜻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주)하나김장평가법인 전북지사(대표 김창배)는 12일 전주시장상을 방문해 '전주함께장터' 운영 기부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지난 2015년에 설립된 (주)하나김장평가법인 전북지사는 부당한 감정평가 및 자산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역사와 대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을 아우르며 다양한 자산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하나김장평가법인 전북지사는 기업과 소상공인, 시민을 잇는 새로운 상생 나눔 프로젝트인 전주시 '전주함께장터'의 취지에 공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눔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기 위해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골목상권 대 소상공인을 살리고,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창배 (주)하나김장평가법인 전북지사 대표는 "전주시에서 지역경제와 사회적 연대를 위한 의미 있는 사업



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해 동참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제지는 "기부와 소비, 나눔이 하나로 연결되는 '전주함께장터'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이러한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전주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군산중앙신협 서대근 이사장, 신협사회공헌재단에 200만원 전달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연수)는 군산중앙신협 새대군 이사장이 군산중앙신협 내운동 본점에서 지난 11일 기부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 전달식에는 신협중앙회 강연수 전북지역본부장과 군산중앙신협 새대군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 6명이 참여했다. 새대군 이사장은 작년부터 신협사회공헌재단의 나눔문화 확산활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자 기부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이번 기부금 200만 원 전 달로 새대군 이사장은 재단누적기부금 7,270,000원을 달성하게 되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014년 출범한 전국 신협과 임직원의 기부금만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최초의 기부협동조합이다. 24년 12월 말 기준 정기 기부자 5,618명이 누적 기부금 652억 원을 조성했으며, 24년 사회공헌사업 규모는 54억 원에 달한다. 건전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동행경제', 협동조합형 인재를 발굴하고 교육하는 '인재양성', 지역 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나눔' 세 영역에서 나눔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아동·청소년 멘토링, 온세상 나눔캠페인(에너지 취약계층 생활지원), 행복한집 프로젝트(주거환경 개선사업)가 재단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된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이다.

또한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신협 아너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신협 아너스클럽'은 누적 기부금 1,000만 원 이상의 법인(신협)과 누적 기부금 500만 원 이상의 개인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신협의 나눔문화를 선도하며 '복지사회 건설



이라는 신협'의 비상 목표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서대문 이사장은 2024년 개인부문 웰빙지능급(기부금 5백만 원 이상)으로 신협 아너스클럽에 합류했다.

서대문 이사장은 "협회와 나눔은 이중행과 차별화된 신협의 고유한 가치이며, 신협 아너스클럽의 일원으로서 포용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실천하겠다."며, "나눔동신사목 개집 이후 더욱 성장해나갈 군산중앙신협에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중앙신협은 조합원 8,000여 명, 자산 1,400억 원 규모로 15년 연속 흑자재정을 달성해온 서민금융기관이다. 지난 3월에 나운동 극동사거리에 본점 신사목을 신축했으며, 수송동 롯데마트 사거리에 지사무소를 두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자치도, 중국 청소년 단체 관광객 대상 환영행사 열어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 전북 유일의 중국 직할 노선인 석도국제철도를 통해 입국한 중국 청소년 단체 관광객을 환영하는 행사를 순안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영행사는 전북을 거쳐 방문하는 중국 청소년들에게 잊지 못할 전북의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전북도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행사에서는 환영식과 꽃다발·기념품 전달, 단체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따뜻한 환영 분위기를 더했다.

이날 전북을 찾은 단체 관광객은 중국 산둥성, 허북성, 허남성 지역 예술회원 및 단체 소속 청소년과 학부모 등 70여 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전북에서 1박 2일 동안 전통 문화 공연 행사, 전주한옥마을 관광, 관소리 체험, 비빔밥 만들기 등 다채로운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즐기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그동안 중국의 스포츠·예술·문화 단체를 대상으로 꾸준한 교류와 유치 마케팅을 전개해 단체 관광객 방문을 이끌어왔다. 한편, 오는 8월 14일에도 석도국제



폐리를 통해 40여 명의 중국 청소년들이 2박 3일의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정식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공장은 “이번 방문이 중국 청소년들에게 전북에 대한 좋은 기억으로 남아 지속적인 방문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환경보건센터, 지역 아동·청소년에 환경보건 교육

전북환경보전센터(센터장 김용현)는 지난 11일 전북대 박물관에서 지역 내 아동·청소년 50명을 대상으로 '제1회 환경보전아이기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고, 자연순환과 생태 감수성을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먼저, 참석자 전원에게 함께 관람한 애니메이션 영화 '벼랑 위의 포뇨'는 바다와 인간 세상을 넘나드는 이야기 속에서 환경과 생명의 연결성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참석자들은 A조와 B조로 나뉘어 △새활용(업사이클링) 체험 프로그램인 비누 키링 만들기 (이빛 김지영 대표 진행)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시 해설 투어(정은 학예사 진행)에 교차로 참여했다. 아이들은 직접 손으로 만들고 보고 듣는 과정을 통해 환경보전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체득했다.



김용현 환경보건센터장은 “환경 문제는 미래세대가 주체가 되어야 할 과제인 만큼, 이번 ‘2025 제1회 환경보건이야기 한마당’ 행사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환경보건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기자



전북농협-전북대, 남원 덕과면서 농촌봉사활동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과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남원시 덕곡면 일원의 6개 마을에서 농촌봉사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농협에서는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대 학생 약 70명이 참여해 여름철 본격적인 영농철들이 이루어지는 농촌 현장에서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활동은 전북농협이 지속 추진하고 있는 청년세대의 농촌 유입 확대 및 동농교류 활성화의 일환으로 전북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농촌의 고통과·일손 부족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동농상생국민운동본부의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참여자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오상근 기자



전북자치도, 어린 대농갱이 무상 방류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가 12일 남원시 요천, 김제시 만경강, 고창군 주천천 등 3개 시군 하천에 멸종위기 어종인 대농어가 치어 3만 마리를 무상 방류했다.

이번 방류는 도내 내수면 수산자원 회복과 생태계 종 다양성 확보를 동시에 이루기 위한 조치다. 방류량은 각 하천 별로 1만 마리씩이다.

이번에 풀어놓은 치어는 지난 7월 자연산 어미를 확보해 산란 유도과 인공채란 과정을 거쳐 부화시킨 개체로, 약 40 일간 수육 관리 후 전장 5cm 이상으로 성장시켰다. 수산물 안전센터 질병검사와 생태계 정착 적합 판정을 통과한 건강한 종자만 선별해 방류했다.

대농어는 동자개과에 속하는 민물고기로, 서해로 유입되는 임진강·주산·금강 하류의 유속이 완만한 진흙·모래 바닥에서 주로 산다.

/이민호 기자



무주장애인복지관 등, NH농협 간식차 나눔 행사

사회복지법인 남동회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종용)은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NH전북농협지역사회공헌단 및 NH농협 무주군지부의 후원으로 12일 복지관 앞마당에서 'NH농협 간식차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노인 등 지역주민에게 무더위를 식히는 시원한 커피와 음료를 제공하며, 지난 20년간의 동행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 **알림**

장수천천사랑 제3회
전국 트로트 가요제

- ▲ 일시: 8월 30일(토), 오후 2시 30분
 - ▲ 장소: 장승군 천천면 하늘내체육관
 - ▲ 주최: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장승군지부
 - ▲ 주관: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 재전주천천항우회
- ▲ 참가신청: 전화 및 방문
- (063-231-6669, 010-7304-5665)
- ▲ 신청마감: 8월 22일까지
 - ▲ 주요행사: 식전공연, 개회식, 경연대회
- 축하공연, 행원권 추첨 등